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 | 연 | 성 | 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음 7월 23일) 제1890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탄소원천기술 개발 외연 확장 승부수

도-전주시, 獨 MAI카본과 국제협력사업 추진키로

공동연구 등 5개 분야 사업 통해 탄소복합재 국제화 요구에 대응 나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세계적인 탄소복합재 클러스터인 독일 MAI카본과 손잡고 탄소산업 원천기술 개발과 외연 확장에 나선다.

전주시 산하 탄소산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독일의 탄소복합재 전문기관인 MAI 카본클러스터와 앞으로 4년간 150만 유로의 예산을 들여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럽을 대표하는 탄소복합재 클러스터인 MAI 카본은 뮌헨과 아우구스부르크, 잉골슈타트 등 독일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탄소복합재 협회이다.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인 BMW와 Audi 등 탄소복합재 기업 및 기관 등 100여개로 구성돼있다.

기술원과 MAI카본은 앞으로 공동연구, 교육훈련, 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커뮤니케이션 등 5개 분야에 걸친 공동 사업을 통해 탄소복합재 산업의 국제화 요구에 대응키로 했다. 국내 대응기관은 기술원이 전담해 맡는다.

차크 폰 레덴 MAI카본 대표는 이날 전북도와 전주시, 기술원을 차례로 방문해 양 기관 간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MAI카본은 오는 12월 독일 프라운호퍼 IGCV연구소에서 주최하는 'Traveling Conference'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파트너 기관으로 기술원을 선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지난달 26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복합재 학술대회'에 참석해 유럽 각국의 탄소학계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오는 17일부터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되는 '제3회 국제 복합재 총회'에서 '전북 탄소산업과 R&D 현황'에 대해 직접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내 최고수준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세계 유수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선진기술교류와 연구역량 향상을 통해 전북 전주가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김제 이택라이스센터 준공 12일 김제 이택라이스센터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김왕배 이택라이스센터 대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건식 김제시장, 도의원, 시의원 및 김제시민 등 500명이 참석하여 김제 이택라이스센터 RPC시설현대화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도내 공공기술사업 활성화 시동… 첨단기술업체 지정 확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도내 8개 공공연구기관과 협약 체결

전북도는 연구소 기업 설립 및 공공기술 이전 등 기술화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전북연구개발 특구본부와 전북지역 8개 공공연구기관이 12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전북지역 공공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특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북지역의 지자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이 가능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출자 모델인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구축 등의 연계·협력 추진 및 특화분야 중심으로 지자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확보 및 차별화된 전북특구 기술 발굴 프로세스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작년 12월 전북연구개발특구1주년 성과공유회에서 '2020년까지 특화분야 융복합 기술사업화생태계 구축 비전'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연구소기업 100개 설립, 첨단기술기업 30개 지정, 공공기술사업화 펀드(1,500억원) 조성,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특화분야(농생명, 융복합부품소재)의 연구소기업 등 기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지역의 공공 연구성과 확산은 물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 기업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일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특구에 연구소기업 설립과 공공기술 사업화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북특구본부가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설 것" 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전북특구와 지역공공기관 협약을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과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확대해, 신규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전북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이낙연, MB 댓글조작 조사 요구에 "법 따라 엄정 처리"

홍준표 등 비리 의혹도 조사 가능성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정원 댓글 게이트 최종 책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법과 정의에 기초해서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홍준표 대표 등 옛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도 조사할 수 있다는 답변도 내놨다.

민 의원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해 위증교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 재산등록법 위반, 국회 운영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고도 질의했다.

이 총리는 "법적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른 것 같지만 만약에 이미 있었던 조사에서 누락된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거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뉴시스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유 및 정제유의 대북 수출 제한이 처음으로 결의에 포함되는 등 기존 대북 제재 조치들을 확대했다. 안보리가 지난해 3월 대북 항공유 수출 중단조치를 취한 적이 있지만, 원유 및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제한하기는 이번이 최초다.

일본 NHK, 아사히 신문 등은 안보리가 이날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당연히 찬성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에는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 포함됐던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조치가 빠지고, 지난 12개월 수준으로 원유 수출량을 동결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400만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새 대북 제재 결의는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출을 금지했다.

초안에 있었던 김정은과 김여정의 자산동결은 수정된 최종안에서 빠졌다.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동결 조항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이름을 올렸던 제재 대상자 중 김정은과 김여정, 고려항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이다.

안보리가 북한이 지난 3일 6차핵실험을 단행한지 약 1주일만에 새로운 제재를 결의한 것은 기존에 1~2개월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움직임으로 평가받을만하다.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북핵, 미사일 개발에 제동이 걸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뉴시스